

사회



12일 새벽 침하된 국도 22호선 광주시 동구 선교동 너릿재 터널 입구 인근 도로에서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들이 긴급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폭탄 맞은’ 너릿재 도로

장맛비에 5~6m ‘폭삭’... 차량 2대 파손

배수 안되고 기반 연약 “비만 오면 불안”

지난 7일에도 침하... “복구 부실” 지적도

12일 새벽 3시께 광주시 동구 선교동 너릿재 터널 부근 도로 기반이 내려앉아 운행 중이던 차량 2대가 파손됐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도로는 지난 7일에 이어 11일부터 이틀에 걸쳐 내린 단 70mm의 장맛비에 또다시 같은 지점이 파손돼 대형 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등에 따르면 국도 22호선 너릿재 오르막길(광주에서 화순방향) 편도 2차선 중 2차선이 갑자기 내린 비로 인해 가로

3~4m, 세로 5~6m, 깊이 1m 가량 기반이 침하되면서 빗길을 운행하던 차량이 교통통제 표지판을 보고 이를 피하려다 2대가 파손됐다.

또 편도 2차선의 도로 중 1개 차선이 통제되면서 화순으로 가는 차량들이 1km 가까이 늘어선 등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 구간은 긴급복구작업에 나선 시에 의해 오후 4시부터 차량 통행이 가능해졌으나, 장마기간 동안 이 길을 오가는 운전자들의 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도로 지점은 지난 7일 내린 폭우로 인해 함몰된 곳과 같은 곳으

로 당시 긴급복구를 했으나 이날 또다시 더 크게 무너져 내리면서 첫 지반침하 당시 복구작업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비가 오면 도로와 도로를 둘러싼 기반에 지속적으로 빗물이 유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앉은 도로만 부분 정비하는 데 그쳐 배수로를 정비하는 등 근본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도로 오른쪽의 사면에서 빗물이 그대로 도로로 쏟아지면서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다. 중앙비 차량 등이 자주 지나면서 도로 기반이 약해진 것이 원인이 된 것 같다”며 “홍수 시에는 근본적인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장마가 지난 뒤 완전 복구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소외계층 자녀 지원 예산 성적 우수자에 부담 지급

권익위, 광주 등 22억 적발

광주 등 전국 일선 학교에서 소년 소년가장 등 소외계층 자녀에게 지원해야 할 정보화 지원 예산을 교직원 추천 등의 명목으로 후순위 또는 성적 우수 학생에게 지급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상당수 학교는 학부모들이 내놓은 자녀 급식비 규정을 어기고, 학교 급식시설과 설비 유지비 등으로 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6월 광주·서울·부산·제주교육청에 대한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러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일선 학교에서 정보화 지원예산 1억6천만 원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 학업성적 우수자를 비롯해 교직원 추천한 학생 298명에게 부담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A고교는 PC 지원 대상 6명 중

5명(83.3%)을, 인터넷 통신비 지원 대상 13명 중 9명(69.2%)을 우선 지원대상자가 아닌 교원 추천 등으로 선정했다.

또 학교급식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직영급식 학교 1천351개 중 약 70%인 946개 학교에서 학부모가 부담한 급식비 22억여 원을 급식 시설과 설비, 유지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B고교는 급식실 가스배관공사비와 가스레인지 구입 등에 1천 100만원의 급식비를, 서울 소재 C고교는 식당 바닥과 천장 청소비 등에 500여만 원을 사용했다.

현행 규정은 직영급식 학교에서는 학부모가 내는 급식비를 급식 시설과 설비, 유지비 등으로 집행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채용 비리 의혹’ 광주교대 교수 2명 무죄

광주지법 파기환송심

교수 공채 과정에서 채용 비리 의혹을 받은 광주교대 교수 2명이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배현태)는 12일 교수 공채에서 특정 지원자를 도운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광주교대 홍모(51)교수와 공채에 합격한 김모(49)교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과장인 홍

교수가 연구실적 심사기준을 강화하자고 제안한 것이 김 교수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았지만, 이는 전문성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가점을 주는 공정한 경우여서 공채관리위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2003년 2학기 교수공채에서 당시 지원자였던 김 교수의 논문실적을 검토한 뒤 더 좋은 점수를 받게 하려고 논문 1편을 급조하도록 해 제출마감이 지난 학회지에 등재되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로 김 교수와 함께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오늘 날씨

☀ 해돋이 05시 28분 🌙 해질녘 19시 48분
☁ 달돋이 22시 46분 ☁ 달지름 10시 40분

장맛비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오겠다.

광주	목포	여수	완도	구례	해남	장흥	고흥	순천	영광	진도	전주	남원	목포	여수	제주도	목포	여수	제주도
흐리고 비	흐리고 비	흐리고 비	흐리고 비	흐리고 비	흐리고 비	흐리고 비	흐리고 비	흐리고 비	흐리고 비	흐리고 비	흐리고 비	흐리고 비	흐리고 비	흐리고 비	흐리고 비	흐리고 비	흐리고 비	흐리고 비
23/28℃	23/28℃	23/28℃	23/27℃	23/27℃	22/28℃	23/27℃	23/27℃	22/28℃	23/28℃	23/27℃	22/28℃	22/29℃	22/28℃	22/28℃	21/24℃	23/28℃	23/28℃	21/24℃

〈오전〉 바다	종양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블랙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1.0~2.0m	☀	🚰	😓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1.0~2.0m	보통	경고	높음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2.0~3.0m			

〈오후〉 바다	종양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1.0~2.0m	목포 05:38	10:54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1.0~2.0m	17:56	23:01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1.0~2.0m	00:04	06:21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1.0~3.0m	12:31	18:18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4(화)	15(수)	16(목)	17(금)	18(토)	19(일)
날씨	☁	☁	☁	☁	☁	☁
최저/최고	23/28	22/27	22/30	23/30	23/29	23/30

(주)남해관광

남도관광대

남해관광대

골프 투어

골프 투어

제주 헬빙투어(고흥역)

제주 헬빙투어

3만원의 행복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http://edu.lingang.go.kr

연회비 3만원에 7,500강의 무료 수강

- 인터넷수능방송, 강남구청 홈페이지
- 강남구청 홈페이지
- 강남구청 홈페이지
- 강남구청 홈페이지
- 강남구청 홈페이지

1577-9100

방수와 단열이 하나로

방수과 단열이 하나로

방수과 단열이 하나로

방수과 단열이 하나로

방수과 단열이 하나로

방수과 단열이 하나로

방수과 단열이 하나로

1577-9100